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❻ 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2)



▶한줄요약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다. 바탕자리(법신)에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상(응신)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림① '소용돌이의 에너지'로 표현된 '보신'의 모습. 산치대탑(제1탑), 동쪽 탑문의 조형, 인도



그림② 허공(법신)의 바탕에서 소용돌이의 장엄 에너지(보신)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삼라만상(응신)이 피어난다.



그림③ 꽃과 나무, 새와 동물, 그리고 사람 등이 생성된다. 온갖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삼신의 조형원리로 나타내고 있다.

바탕을 보는 게 불교미술 핵심원리

지난 연재에서 '존재의 바탕(법신)과 그것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언급했다. '바탕 의식'의 특성은 '여여(如如)하다' '고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不動)이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한) 바탕 의식에 대한 눈 뜸으로 인해, 고통의 개체의식(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원리를 논했다.

이러한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고, 대승불교의 불신관 또는 우주관은 법신에서 시작한다. 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고, 보신에서 응신이 일어나는 '법신→보신→응신'의 '삼신(三身)의 원리.' 이것이 존재의 원리이자, 불교미술의 원리라고 지난 연재에 소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되고, 보신은 '연꽃'으로, 응신은 중생의 눈에 보이는 '붓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부동의 자리라는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될 수 없는 청정한 자리!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8천송반야경〉)"는, 그리고 "모양이나 소리로는 찾을 수 없다(〈금강경〉)"는 자리. 색도 모양도 소리도 없는 부동의 자리에서, 어떻게 색과 모양과 소리의 보신이 나오는가. 이는 모순이 아닌가.

보신=자비, 중생을 살피는 마음

필자는 한때 수행처의 법사님들에게 "바탕 자리(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십니까"라며 물으며 다닌 적이 있다. '반응 없는 그 자리'와 도무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붓다처럼 반야바라밀다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야바라밀다! 즉, '궁극의 깨달음(지혜의 완성)'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야 모를 일이다. 또 (세세생생 닦아) 그 경지가 설사 된다 해도, 그 경지에서 '중생을 돌아볼 마음(자비)'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나오는가'라는 화두를 이해하기 위해, 붓다 득도 당시의 생생한 체험 속으로 들어 가 보자.(지면 관계상, 논지에 필요한 직접적인 부분 이외의 내용은 요약 제시하였다.) 붓다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더 이상 위가 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체득한 후, 숙명통이 나서 자신의 윤회를 본다. 백 천 만 번의 태어나고 죽음의 무한 반복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타 중생의 윤회도 목격한다. "나고(生) 죽음을 한량없이 한/ 저 일체 중생 무리들은/ 일찍이 모두 친족이었거늘/ 그리하여 곧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켰네."(〈불소행찬(佛所行讚)〉 '아유삼보리품(阿惟三菩提品)' 중)

여기서 핵심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중생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것을 '크나큰 자비심(대비심)'이라고 한다. 만약, 득도의 안락함(法悅)에 자신만 스스로 머물렀다면 소승에 그쳤겠지만, 여기서 자비심을 일으킴으로써 대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오랫동안의 소원 이루었거니/ '나'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르리/ 그러나 부처눈〔불안佛眼〕으로 중생을 관찰하고/ 가엾이 여기는 지극한 마음 내어/ 그들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였거니 (중략) 차라리 부지런한 방편 버리고/ 잠자코 편안히 있고자 하였으나/ 돌아보아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고/ 설법할 마음 다시 생기었나니."

불교미술 가로지르는 원리 '삼신'
삼신, 일원상–연꽃–붓다로 나타나
〈화엄경〉 등 보신의 장엄 구현해
화폭 자체 알아야 불화가 보인다

붓다는 열반을 증득한 기쁨과 편안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었으나 (아직 열반을 모르는) '중생들이 지극히 가엾어서' 머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 때 '본래의 서원'이 상기됐는데, 그것은 '고통 속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었다.

법신의 두 얼굴, 자수용신+타수용신

여기서 법신은 두 가지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궁극의 '깨달음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비롯되는 '자비심'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깨달음의 몸체를 '수용신(受用身)'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을 수용한다는 말인가? 수용의 대상에 따라 수용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내증(自內證)에 머물며 스스로를 즐기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이다. 둘째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것을 수용하게 시키는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다. 여기서 타인은 보살을 말한다. 보살을 교화시키는 몸체를 타수용신이라 한다. 보살을 교화하는 부처는 설법하는 부처이다. 하지만, 자수용신은 설법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로자나'와 '노사나'로 나뉘게 된다.

양자는 결국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다. 자칫 하나는 무위(無爲)이고 또 하나는 유위(有爲)여서, 상반되는 듯하지만, 자수용신 안에 이미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성품이 내재 되어 있기에,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자수용신을 법신 비로자나, 타수용신을 보신 노사나라고 한다. 보신에서는 무수한 화신이 나와 중생 교화에 응한다. 중생의 구제는 (깨달음의 세계와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법의 교화로 가능하기에, 보신불은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모두 보신의 장엄을 말하고 있다. 방대한 〈화엄경〉은 보신 노사나를 묘사하기 위해 참으로 놀라울 만큼 많은 형용사가 동원되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토록 다채롭고 장대한 문장들이 무려 60권(〈60화엄〉) 또는 80권(〈80화엄〉)의 분량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중무진의 장엄 에너지를 중중무신의 언어로 기술하고 있다. '화엄(華嚴)'이라는 경전의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 〈화엄경〉은 '부처의 연꽃(佛華)이 온 세상을 장엄(莊嚴)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고 한다.

바탕을 먼저 볼 것!

〈법화경〉의 '법화(法華)'라는 제명의 뜻도 마찬가지이다. 법화란 '부처의 연꽃' 또는 '진리의 연꽃'이란 뜻이다. 진리의 연꽃을 피워 중생을 제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초기 대승경전이 온통 보신에 대해 역설하고 있듯이, 불교미술 역시 온통 찬란한 보신의 표현으로 충만하다. 법당의 다채로운 장식들, 천정을 가득 메우는 단청 속 그림들, 알 듯 모를 듯 춤추는 문양들, 부처와 보살의 화려한 광배 · 보관 · 천의 등등. 모두 보신의 장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다. 바탕자리(법신)에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상(응신)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을 먼저 보는 것'이 불교미술을 보는(또는 나를 보는, 존재를 보는) 요령이다. 비유하자면, 영화를 볼 때, 영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당이 존재하려면 먼저 허공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허공(법신)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으로, 법당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님과 신도의 발원 · 기도 · 시주 · 공양, 그리고 건축을 위한 숫한 재료와 장기간의 노동 등등. 이러한 에너지의 조화는 '보신'에 해당된다. 그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법당 '응신'이 완성된다.

불화를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면 된다. 우리의 눈은 화폭 안에 존상들을 쫓기에 바쁘다. 하지만, 화폭이라는 바탕 그 자체를 먼저 알아야 비로소 불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불화 또는 사경의 바탕은 항상 법신 자리로 설정되기에 감색(紺色) 또는 자색(紫色)으로 칠해진다. 감색과 자색은 깨달음의 색깔인데, '깨달음의 색깔'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에서 설명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家寶
青龍, 白虎 도예세트 급매 높이 66cm · 폭45cm · 둘레66cm
海東 先生任 傑作品. 安靜과 繁榮을!
보관관리인 010-9011-7230 (가격절충가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